

2023년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특징 : 시간제 근로자를 중심으로

이기쁨 · 황지영*

2023년 8월 비정규직은 전년보다 규모와 비중이 모두 감소하였다. 세부 근로형태별로 보면 한시적 근로자(반복갱신)와 비전형 근로자(일일근로)는 감소한 반면 시간제 근로자는 큰 폭 증가하였다. 특히 다른 근로형태와 중복이 제거된 순수한 시간제 근로자가 크게 늘었다. 순수한 시간제 근로자는 여성에서 대부분 증가했는데, 신규로 채용된 여성 시간제 근로자가 전년대비 증가했고, 평균 근속기간도 길어졌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 월평균임금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은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이 상승하였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복지제도 수혜율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비정규직 근로형태 중 특수형태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2023년 비정규직 노동시장은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중이 감소한 가운데 근로조건도 전년대비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1. 머리말

2023년 노동시장은 2022년 보다 취업자수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수출과 내수 둔화로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2022년 큰 폭으로 고용이 증가한 기저효과가 더해지면서 2023년 취업자 증가폭은 축소되었다. 다만, 여성 및 고령층, 그리고 서비스업에서의 고용 증가로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는 비교적 더딘 속도로 나타났다. 2023년 8월 기준 정규직은 전년대비 증가폭이 축소되고 비정규직은 감소하여 임금근로자 전체 증가폭이 큰 폭 줄어들었다. 임금근로자 증가폭이 둔화되기는 했으나 전년 같은 기간에 약 73만 명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임금 고용 성과 부진으로 보기는 어렵다. 비정규직은 전년대비 0.4% 감소하였는데, 한시적 근로자와 비전형 근

* 이기쁨=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ppaum@kli.re.kr), 황지영=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jyhwang@kli.re.kr).

로자는 감소한 반면 시간제 근로자가 큰 폭 증가했다. 최근 몇 년간 한시적(기간제) 근로자 증가가 비정규직 고용 변화의 주된 요인이었다면, 2023년은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가 특징적이다.

이 글에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2023년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중 변화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다른 근로형태와 중복되지 않고 순수하게 시간제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규모와 구성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볼 것이며, 비정규직 세부 근로형태별로 임금과 근로조건에도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II. 2023년 비정규직의 규모와 특징

1.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 감소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모두 감소하였다. 2023년 8월 기준 비정규직은 전년동월대비 3만 4천 명 감소하고 임금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0.5%p 감소한 37.0%이다(그림 1 참조). 비정규직 규모의 증감만 본다면, 지난 10년간 비정규직은 증가세가 나타났다. 다만, 2019년 조사방식이 변경되면서 추가로 포착된 기간제 근로자 영향으로 2019년 이전과 이후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2019년 전후 두 기간으로 나누어 살펴봐도 비정규직 규모는 어느 정도 증가해왔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0년간 비정규직 규모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고용 충격이 있었던 2020년 이후 2023년이 두 번째이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코로나19 확산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경기회복에 따라 임시직(기간제) 형태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큰 폭 증가했었다. 이후 2022년과 2023년 두 해 연속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2023년 8월을 기준으로 2019~2020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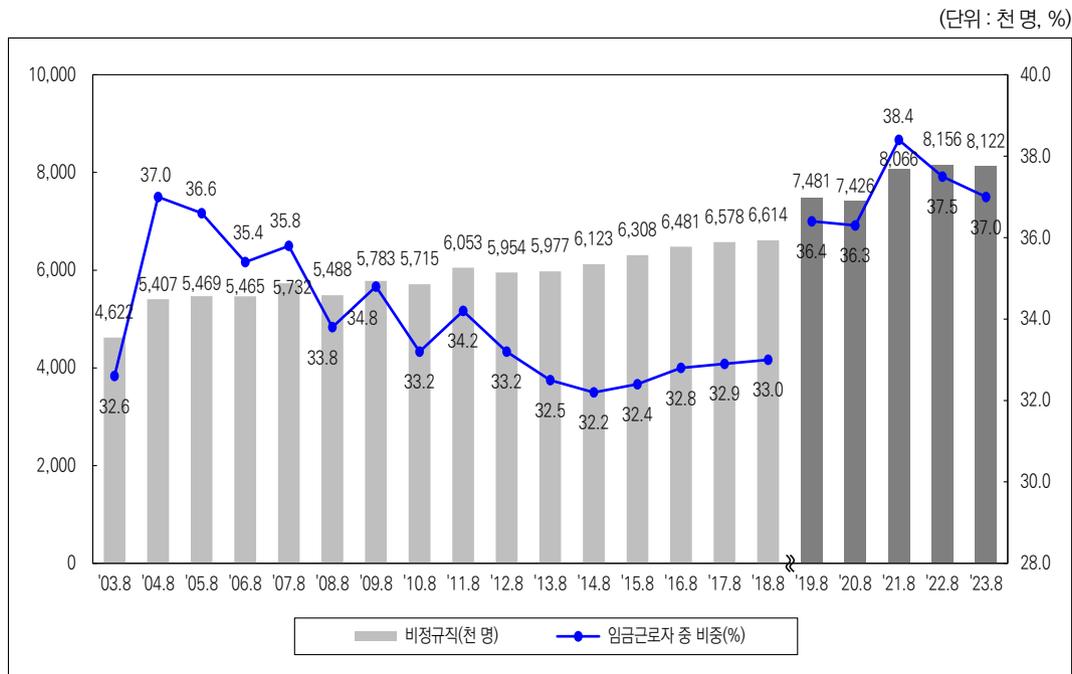
정규직은 2023년에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2022년 취업자 증가는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는 73만 2천 명 증가했고, 그중 정규직이 64만 1천 명이었다. 2023년은 정규직이 26만 4천 명 증가하였고, 임금근로자도 23만 명 증가에 그쳤다. 수치상으로는 2023년 정규직 증가폭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보이나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가라는 것을 감안하면 적은 규모는 아닐 것이다.

둘째, 세부 근로형태별로 보면 시간제 근로자가 큰 폭 증가하였다. <표 1>을 보면, 한시적 근로자와 비전형 근로자는 감소한 반면 시간제 근로자는 전년 대비 18만 6천 명 증가했다. 시간제 근로자는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

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근로자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각 근로 형태는 유형 간 중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정부 일자리 사업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이면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간제가 증가하면서 시간제도 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2019~2022년 평균 시간제 근로자는 24만 5천 명 증가했으나 다른 근로형태와 중복되는 인원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시간제에만 해당하는 근로자는 2019~2022년 평균 1만 명 증가한 수준이다. 그러나 2023년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는 다른 근로형태와 중복되는 경우가 아닌, 순수하게 시간제에만 해당하는 근로자가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2023년 비정규직 규모 감소는 비전형 근로자가 감소(17만 4천 명 감소)한 영향이 크다. 특히 일일 근로자가 15만 명 가까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일일 근로자는 일일 근로자의 약 60%가 종사하고 있는 건설업에서 10만 명 이상 감소했다. 2023년 8월 기준 건설업 일일 근로자의 감소는 당시 건설업 고용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건설업 취업자는 감소

[그림 1] 비정규직 규모 및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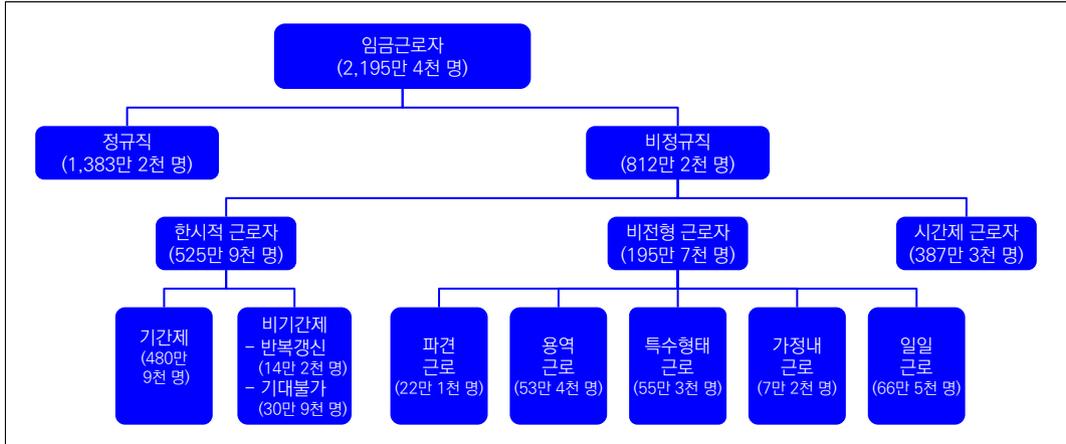


주 : 1) 2019년 이후의 비정규직 규모는 2019년 추가로 포착된 기간제 근로자 규모에 영향을 받으므로 2018년 이전과 2019년 이후로 구분하여 비교 가능함.

2) 반올림으로 인해 임금근로자와 정규·비정규직 총합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그림 2] 2023년 8월 비정규직 근로형태별 구성 및 규모



주 :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근로자(한시적, 시간제, 비전형)의 규모는 유형 간 중복 원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합계가 불일치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23년 8월.

<표 1> 정규직·비정규직 근로형태별 규모 및 비중 증감

(단위 : 천명, %)

	규모 (천 명)					비중 (%)		
	2021. 8. (A)	2022. 8. (B)	2023. 8. (C)	증감 (B)-(A)	증감 (C)-(B)	2021. 8.	2022. 8.	2023. 8.
임금근로자	20,992	21,724	21,954	732	230	100.0	100.0	100.0
정규직	12,927	13,568	13,832	641	264	61.6	62.5	63.0
비정규직	8,066	8,156	8,122	90	-34	38.4	37.5	37.0
① 한시적 근로	5,171	5,348	5,259	177	-89	24.6	24.6	24.0
기간제	4,537	4,689	4,809	152	119	21.6	21.6	21.9
반복갱신	259	310	142	52	-169	1.2	1.4	0.6
기대불가	375	349	309	-27	-40	1.8	1.6	1.4
② 비전형 근로	2,278	2,131	1,957	-147	-174	10.8	9.8	8.9
파견	211	189	221	-22	32	1.0	0.9	1.0
용역	585	567	534	-18	-32	2.8	2.6	2.4
특수형태근로	560	561	553	1	-8	2.7	2.6	2.5
가정 내 근로	79	95	72	16	-22	0.4	0.4	0.3
일일근로	955	814	665	-141	-149	4.5	3.7	3.0
③ 시간제 근로	3,512	3,687	3,873	175	186	16.7	17.0	17.6

주 : 1) 임금근로자 중 각 근로형태가 차지하는 비중임.

2)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근로자(한시적, 시간제, 비전형)의 규모와 증감은 유형 간 중복 원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합계가 불일치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세가 이어졌다.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이 임시일용직에서 나타났으며, 건설업 일용직 감소폭이 컸다. 8월 기준으로 건설업 일용직은 전년동월대비 7만 3천 명 감소하였다.

한시적 근로자도 전년대비 8만 9천 명 감소하였다. 한시적 근로자 중 기간제는 11만 9천 명 증가하였으나 반복갱신 근로자가 16만 9천 명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복갱신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았지만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로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에 속한다. <표 1>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경기 위축으로 2020년 중 반복갱신 근로자가 약 37만 명 감소했었다(제조업, 도소매업, 사업서비스 등). 이후 반복갱신 근로자 규모는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대에 머물러 왔다. 2023년 반복갱신 근로자는 전년대비 약 17만 명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감소하여 0.6% 수준이다. 2023년 반복갱신 근로자는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업 위주로 감소하였다. 한편, 기간제 근로자는 2023년에도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기간제 근로자는 30대(6만 명 증가)와 60세 이상(7만 7천 명 증가)에서 증가했는데, 30대는 제조업,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업과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60세 이상은 보건사회복지업과 공공행정에

<표 2> 정규직·비정규직의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규모 및 비중 변화

(단위: 천명, %)

	규 모(천 명)					비중(%)		
	2021. 8. (A)	2022. 8. (B)	2023. 8. (C)	증감 (B)-(A)	증감 (C)-(B)	2021. 8.	2022. 8.	2023. 8.
정규_상용	11,892	12,653	12,919	761	266	56.7	58.2	58.8
정규_임시	980	843	864	-137	21	4.7	3.9	3.9
정규_일용	55	72	50	18	-23	0.3	0.3	0.2
비정규_상용	3,001	3,148	3,275	147	127	14.3	14.5	14.9
한시적_상용	2,506	2,627	2,615	121	-13	11.9	12.1	11.9
비전형_상용	548	531	512	-17	-19	2.6	2.4	2.3
시간제_상용	666	731	927	66	196	3.2	3.4	4.2
비정규_임시	3,872	3,930	3,895	58	-35	18.4	18.1	17.7
한시적_임시	2,549	2,580	2,476	31	-103	12.1	11.9	11.3
비전형_임시	739	740	734	1	-6	3.5	3.4	3.3
시간제_임시	2,405	2,482	2,515	77	33	11.5	11.4	11.5
비정규_일용	1,193	1,078	953	-115	-126	5.7	5.0	4.3
한시적_일용	116	141	168	25	27	0.6	0.6	0.8
비전형_일용	991	860	711	-131	-149	4.7	4.0	3.2
시간제_일용	441	474	431	32	-43	2.1	2.2	2.0

주: 1) 비중은 각 연도 임금근로자=100일 때 정규직·비정규직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

2) 반올림으로 인해 정규·비정규직의 지위별 비중과 정규·비정규직 총합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서 주로 증가하였다.

〈표 2〉에는 비정규직의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규모와 비중이 나타나 있다. 2023년 근로형태로는 비정규직이면서 종사상 지위로는 상용직인 근로자가 전년보다 12만 7천 명 증가했다. 정규직=상용직, 비정규직=임시일용직으로 여겨지기 쉽지만 종사상 지위에 의한 구분과 정규·비정규 분류는 그 기준이 다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용직, 1개월 이상~1년 미만이면 임시직,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분류된다.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는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 등으로 분류된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도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용직이며, 시간제 근로자도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상용직으로 분류된다. 상용직인 비정규직은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27만 명, 14만 7천 명 증가했었다. 당시 상용직인 한시적 근로자가 전년보다 각각 24만 2천 명, 12만 1천 명 증가했고, 그 중 기간제 근로자가 각각 27만 8천 명, 8만 3천 명 증가했다. 2023년 상용직인 비정규직 증가는 시간제 근로에서 상용직이 큰 폭 증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상용직인 한시적 근로자(반복갱신)와 비전형 근로자(용역)는 감소한 반면 상용직인 시간제 근로자는 전년보다 약 20만 명 증가했다.

2. 다른 근로형태와 중복을 제거한 여성 시간제 근로자 큰 폭 증가

2023년 비정규직 세부 근로형태별 규모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한시적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세 유형 간 중복을 허용하여 조사된다. 경우에 따라 특정 근로형태가 과다 추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용형태별 근로자 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근로형태와 중복이 되는 부분을 제거하여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로 〈표 3〉에 비정규직 근로형태별 중복 현황이 나타나 있다. 2023년 8월 기준 시간제 근로자는 387만 3천 명이며 이는 전년대비 18만 6천 명 증가한 수준이다. 여기서 시간제이면서 한시적 근로자이기도 한 인원, 시간제이면서 비전형 근로자인 인원 그리고 한시적이면서 비전형이면서 시간제인 근로자(예를 들어, 용역·기간제·시간제)를 제외하면 순수하게 시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인원은 149만 9천 명이고, 2022년보다 21만 1천 명이 늘었다. 시간제 근로자 규모는 2003년 이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9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면, 시간제 근로자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큰 폭 증가했다. 2020년 전년대비 9만 7천 명, 2021년 26만 명, 2022년 17만 5천 명 증가했는데, 이 시간제 근로자 증가분은 한시적이면서 시간제 근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시적이면서 시간제 근로자는 2020년 8만 2천 명, 2021년 22만 2천 명, 2022년 8만 1천 명 증가했고, 연령으로는 60세 이상 연령대에서, 산업으로는 보건사회복지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

〈표 3〉 비정규직 근로형태별 중복 현황



주 : 1) A. 한시적, B. 시간제, C. 비전형은 각각 다른 근로형태와 중복이 제거된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임.

2) 비중은 비정규직=100일 때 각 근로형태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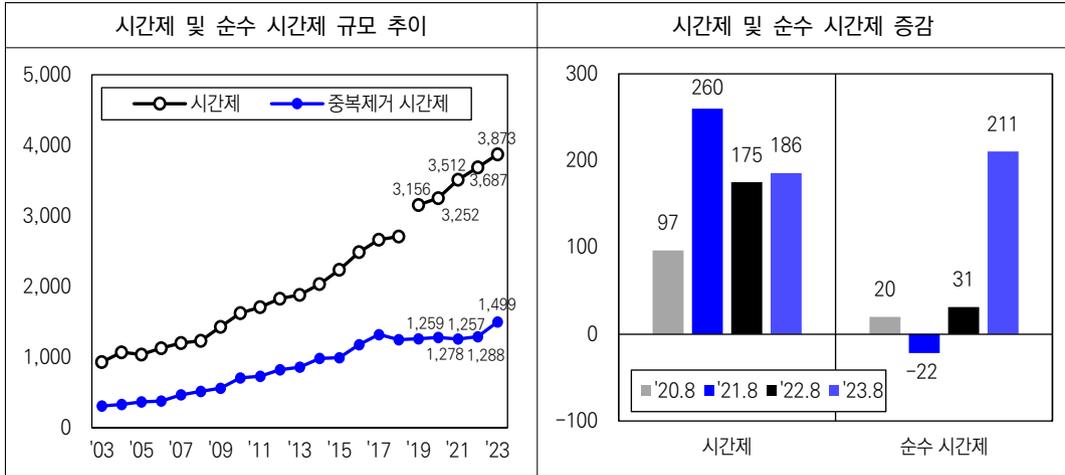
했다. 2020~2022년에는 한시적 근로자(그중 기간제)가 증가하면서 시간제 근로자도 같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기간에 다른 근로형태와 중복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시간제에만 해당하는 근로자는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했다. 2023년 시간제 근로자 규모 변화가 이전과 다른 점은 순수하게 시간제에만 해당하는 근로자가 큰 폭 증가했다는 것이다(그림 3 참조). 따라서 2023년 시간제 근로자 수 변화를 다른 근로형태와 중복되지 않고 순수하게 시간제에만 해당하는 근로자(이하 순수 시간제)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4]에는 순수 시간제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과 규모 변화가 나타나 있다. 2023년 순수 시간제 증가분 21만 1천 명 중 상용직은 13만 7천 명(여성이 10만 1천 명 증가) 증가하고, 임시·일용직은 7만 4천 명 증가하였다. 시간제에서 상용직 순수 시간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10%를 넘지 못하였으나 2023년에는 12.1%로 증가하였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 2023년 순수 시간제의 증가는 대부분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이다. 중복을 제거한 여성 순수시간제 근로자는 2020~2022년 중 3년 연속 감소해 왔으나 2023년 증가로 전환하여 전년대비 16만 6천 명 증가했다. 그 결과 여성 임금근로자에서 순수 시간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에 전년대비 증가했다. <표 5>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분포변화를 보여준다. 여성 비정규직 근로형태별 근로자수는 근로형태 간 중복이 제거된 수치이다. 비정규성이 강한 순서(특수형태근로>가정내근로>파견·용역>일일근로>한시적근로>시간제근로)로 근로형태간 중복을 제거하는 통계청 기준에 따라 여성 비정규직 근로형태 간 중복을 제거하였다.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45.5%이다. 비정규직 규모는 2022년에 비해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었으나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0.5%p 감소했다. 2023년에 기간제를 제외한 대

부분의 비정규직 근로형태가 감소한 것과는 다르게 여성 시간제 근로는 큰 폭 증가하였다. 여성 임금근로자에서 순수 시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9.3%에서 2023년 10.7%로 증가했다.

[그림 3] 시간제 근로 및 순수 시간제 근로자 규모와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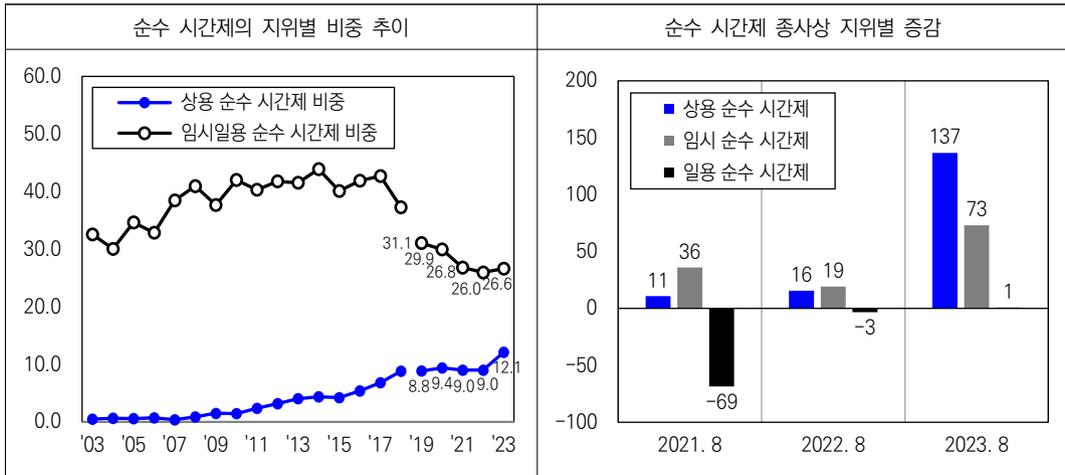
(단위: 천명)



주: 증감은 전년동월대비 증감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그림 4] 순수 시간제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 추이 및 지위별 규모 증감

(단위: %, 천명)



주: 1) 상용 순수 시간제 및 임시일용 순수 시간제 비중은 전체 시간제 근로자 중 비중.
 2) 증감은 전년동월대비 증감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4〉 시간제 근로자 및 중복을 제거한 시간제 근로자 중 여성 규모 및 비중

(단위 : 천명, %, %p)

	규모					전년동월대비 증감			
	2019	2020	2021	2022	2023	2020	2021	2022	2023
시간제 근로자	3,156	3,252	3,512	3,687	3,873	97	260	175	186
여성 시간제 근로자	2,310	2,337	2,502	2,562	2,731	28	164	61	168
(비중)	(73.2)	(71.9)	(71.2)	(69.5)	(70.5)	(-1.3)	(-0.6)	(-1.7)	(1.0)
중복을 제거한 여성 시간제 근로자	961	955	924	909	1,075	-7	-31	-15	166
(비중)	(30.5)	(29.4)	(26.3)	(24.7)	(27.8)	(-1.1)	(-3.0)	(-1.7)	(3.1)

주 : 1) 비중은 전체 시간제 근로자 중 여성 시간제 근로자 또는 중복을 제거한 여성 시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임.

2) 증감은 전년동월대비 증감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5〉 여성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분포변화

(단위 : 천명, %)

	여성 임금근로자 근로형태별 증감				비중(%)			
	2020	2021	2022	2023	2020	2021	2022	2023
임금근로자	-79	391	312	239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44	-8	300	177	55.0	52.6	54.0	54.5
비정규직	-35	400	13	62	45.0	47.4	46.0	45.5
① 한시적 근로	31	356	41	-48	25.0	27.8	27.3	26.2
기간제	151	397	18	66	21.0	24.4	23.8	23.9
반복갱신	-156	5	36	-88	1.4	1.4	1.7	0.8
기대불가	36	-46	-12	-26	2.6	2.0	1.9	1.6
② 비전형 근로	-59	74	-14	-56	9.5	9.9	9.4	8.6
파견 및 용역	-58	19	7	1	3.5	3.5	3.5	3.4
특수형태근로	-34	41	2	-13	3.4	3.7	3.6	3.4
가정 내 근로	2	22	22	-32	0.4	0.6	0.8	0.5
일일근로	31	-7	-44	-11	2.1	2.0	1.5	1.3
③ 시간제 근로	-7	-31	-15	166	10.5	9.8	9.3	10.7

주 : 1) 비중은 여성 임금근로자 중 각 근로형태가 차지하는 비중.

2) 근로형태별 비정규직은 모두 중복이 제거된 수치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비정규직 규모의 변화는 신규 입직자 수와 평균 근속기간 변화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비정규직 규모 증가는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가 증가하거나 평균 근속기간이 늘어날 때 증가하고, 반드시 양자가 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표 6〉은 시간제 및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표 6〉 시간제 및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신규 입직자 수와 평균 근속기간

(단위: 천명, 개월)

	시간제 신규 입직자 수(근속기간 1년 이내)					평균 근속기간		
	2021. 8. (A)	2022. 8. (B)	2023. 8. (C)	증감 (B)-(A)	증감 (C)-(B)	2021. 8.	2022. 8.	2023. 8.
시간제 근로자	2,279	2,368	2,361	88	-7	21.3	22.6	25.5
순수 시간제 근로자	607	647	701	40	54	31.2	31.1	35.1
여성 시간제 근로자	1,545	1,546	1,585	1	39	22.2	24.3	26.7
여성 순수 시간제 근로자	433	435	486	3	51	30.4	31.1	35.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7〉 여성 순수시간제 근로자의 연령별, 혼인여부별 규모 변화

(단위: 천명)

		규모			증감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중복을 제거한 여성 순수시간제 근로	전체	924	909	1,075	-31	-15	166	
	20~29세	전체	232	223	258	-3	-8	35
		미혼	221	216	245	-2	-5	29
		유배우자	10	6	12	-1	-5	6
		이혼,사별	0	2	1	0	2	0
	30~39세	전체	115	100	115	-11	-15	15
		미혼	30	20	34	4	-9	14
		유배우자	81	76	71	-14	-5	-5
		이혼,사별	4	4	9	-1	-1	6
	40~49세	전체	159	151	191	-12	-9	40
		미혼	14	11	13	3	-3	2
		유배우자	137	125	160	-5	-12	35
		이혼,사별	9	15	18	-10	6	3
	50~64세	전체	273	280	328	-2	7	48
		미혼	12	6	10	5	-6	3
		유배우자	205	215	263	-6	10	48
		이혼,사별	56	59	55	-1	3	-4
	65세 이상	전체	102	98	127	1	-4	29
		미혼	1	1	2	0	0	0
		유배우자	57	56	65	5	-1	9
이혼,사별		44	41	60	-4	-4	20	

주 : 증감은 전년동월대비 증감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신규입직자 수를 보여준다. 근속기간이 1년 이내인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로 가정하였다. 2023년 신규로 채용된 시간제 근로자는 전년보다 7천 명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전체 시간제 근로자 규모가 전년보다 큰 폭 증가한 것은 시간제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증가(2.9개월 증가)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2023년에 신규로 채용된 시간제 근로자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지만, 다른 근로형태와 중복을 제거하고 보면 순수 시간제는 신규 입직자가 증가했다. 신규로 채용된 순수 시간제 중 대부분을 여성이 차지한다. 여성 순수시간제 근로자는 평균 근속기간도 2022년 보다 3.9개월 증가하여 2023년 8월 기준 여성 순수시간제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약 3년 정도의 근속기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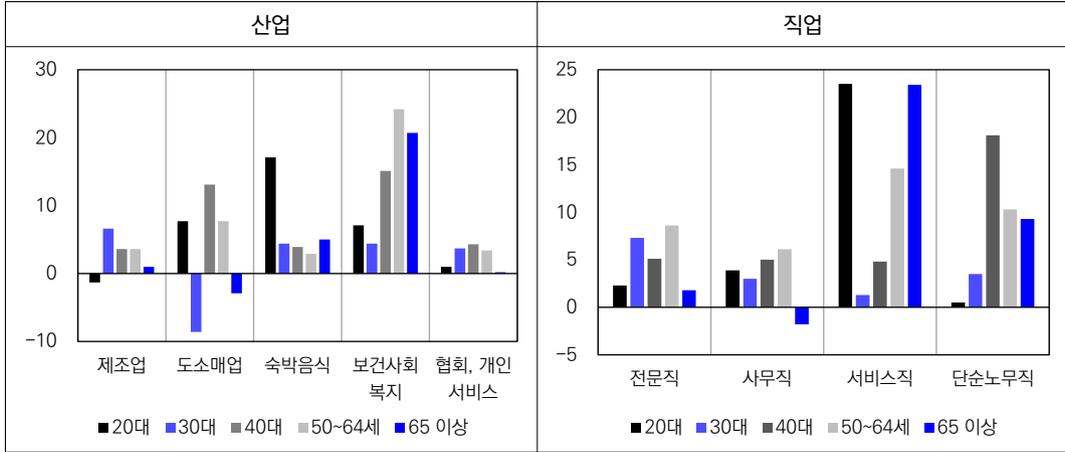
여성 순수시간제 근로자를 연령별, 혼인여부별로 나타낸 <표 7>을 보면, 2023년 여성 순수시간제 근로자는 여성 시간제 근로자가 집중되어 있는 20대 미혼, 40~64세 유배우자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20대 순수 시간제는 숙박음식업, 도소매업에서, 40~64세는 보건사회복지업을 위주로 증가하였으며, 30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서비스직이나 단순노무직에서 증가했다. 여성 순수시간제 근로자는 특정 산업을 위주로 분포하는 경향이 있다. 숙박음식업, 보건사회복지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네가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전체 여성 순수 시간제 중 70% 이상을 차지한다. 2023년 8월 기준으로 여성 순수시간제 근로자는 숙박음식업에 약 28.7%, 보건사회복지업에 19.3%, 도소매업에 15.3%, 교육서비스업에 9.7% 분포되어 있다.

2023년 8월 여성 순수시간제 근로자에서 전일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시간제 근로형태로 일을 하는 근로자 비중은 약 12% 정도에 불과하며,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한 이유도 자발적 사유에 의해 선택한 근로자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표 8>에서 여성 순수시간제 근로자의 일자리 선택 동기를 보면, 2023년 8월 기준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에 만족하여’가 40.6%로 가장 많았다(전년대비 1.6%p 증가). 비자발적 사유에 속하는 ‘생활비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가 16.8%로 둘째로 많았으나 비중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과거 10년간 생활비등 당장 수입을 목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택하는 여성은 여성 순수시간제 중 20% 이상을 차지하여 왔으나 최근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에 만족하여 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택한 여성은 2010~2014년 중에는 10%대, 2015~2018년에는 20%대로 증가했으며 2019년 이후 30%대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에 만족하여 시간제 근로를 선택한 근로자는 2023년 여성 순수 시간제 증가분 중 절반을 차지하고(8만 2천 명 증가), 그 외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이거나 육아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선택한 근로자는 각각 5만 6천 명, 2만 2천 명 증가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2023년 8월 기준 비정규직은 규모와 비중이 모두 감소하였다. 세부 근로형태별로 보면 한시적근로 중 반복갱신과 비전형근로 중 일일근로의 감소가 컸다. 반면, 시간제 근로자가 전년대비 큰 폭 증가하였다. 특히, 다른 근로형태와 중복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그림 5] 여성 순수시간제 근로의 산업 및 직업별 증감(2023년 8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8> 중복제거 여성 순수시간제의 일자리 선택 동기

(단위: %)

	2019. 8	2020. 8	2021. 8	2022. 8	2023. 8
중복제거 여성 시간제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에 만족하여	30.6	31.9	34.9	39.0	40.6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5.6	8.7	9.6	6.3	10.5
생활비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24.7	26.1	23.3	20.1	16.8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4.9	3.8	5.6	5.4	4.1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0.7	1.6	1.1	1.2	1.2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2.4	1.1	1.7	2.5	2.2
육아·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13.3	10.3	7.9	8.8	9.5
학업·학원수강·직업훈련·취업준비 등을 병행	11.8	11.4	9.6	11.1	9.8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1.1	1.2	1.4	1.1	1.4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4.1	3.6	4.9	3.9	3.8
기타	0.8	0.2	0.1	0.5	0.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시간제에만 해당하는 근로자가 전년보다 21만 명 이상 증가했으며, 그중 약 79%가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였다. 2023년 신규로 채용된 여성 순수시간제 근로자 증가와 함께 평균 근속기간도 상당폭 증가하면서 전체 여성 시간제 규모가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 순수 시간제는 산업 및 직종 전반에서 증가하기보다는 특정 산업과 직종에 집중되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20대는 숙박음식이나 도소매업, 50세 이상은 보건사회복지업에서 크게 증가하고, 주로 서

비스직이나 단순노무직 위주로 증가했다.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에 만족하여 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는 여성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Ⅲ.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1.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 축소

〈표 9〉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과 시간당 임금수준을 나타낸다. 2023년 8월 기준

〈표 9〉 월평균 임금, 시간당 임금 및 평소 근로시간의 수준 및 증감률(2023년 8월)

(단위 : %, 전년동월대비)

근로형태	월평균 임금(만 원)		시간당 임금(천 원)		근로시간(시간)
		실질		실질	
임금근로자	300.7(4.4)	269.5(1.6)	17.7(4.6)	15.9(1.8)	38.5(-0.3)
정규직	362.3(4.1)	324.7(1.3)	20.0(3.9)	17.9(1.1)	42.4(0.0)
비정규직	195.7(4.0)	175.4(1.2)	13.9(5.6)	12.4(2.7)	31.8(-1.2)
한시적 근로	208.0(4.5)	186.4(1.7)	13.9(5.0)	12.5(2.2)	33.3(-0.6)
기간제	209.9(4.0)	188.1(1.2)	14.1(4.5)	12.6(1.6)	33.2(-0.6)
반복갱신	203.8(6.0)	182.7(3.1)	13.0(8.9)	11.7(5.9)	37.0(-0.3)
기대불가	179.3(7.2)	160.7(4.3)	12.4(4.5)	11.1(1.7)	33.3(3.4)
비전형 근로	221.9(7.0)	198.9(4.1)	13.8(6.1)	12.4(3.2)	37.6(1.1)
파견	225.7(-6.0)	202.3(-8.6)	13.4(-5.7)	12.0(-8.3)	38.6(-0.3)
용역	217.0(7.8)	194.5(4.8)	12.4(5.8)	11.1(2.9)	40.9(1.2)
특수형태근로	257.0(10.6)	230.3(7.6)	15.7(10.2)	14.1(7.2)	38.3(0.0)
가정 내 근로	153.1(3.0)	137.2(0.2)	14.8(27.3)	13.2(23.8)	28.4(-2.1)
일일근로	195.9(3.2)	175.6(0.4)	13.0(2.3)	11.7(-0.5)	34.6(0.9)
시간제 근로	107.5(7.6)	96.3(4.7)	12.5(7.1)	11.2(4.2)	19.8(0.5)

주 : 1) 근로시간은 주된 직장에서의 평소 주당 근로시간임. 평소 주당 근로시간은 주된 직장(일)에 고용될 당시 평소 1주 동안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함. 정해진 근무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주당 평균 근무일 수와 일일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조사됨.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을 이용하여 월평균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고 원단위에서 반올림하였음.

3)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유급 일시휴직자 혹은 3개월 이내에 임금이 발생했던 일시휴직자도 포함됨.

4)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임을 고려하여 2023년 6~8월 소비자물가지수를 평균 내어 실질임금 계산에 이용하였음.

5) ()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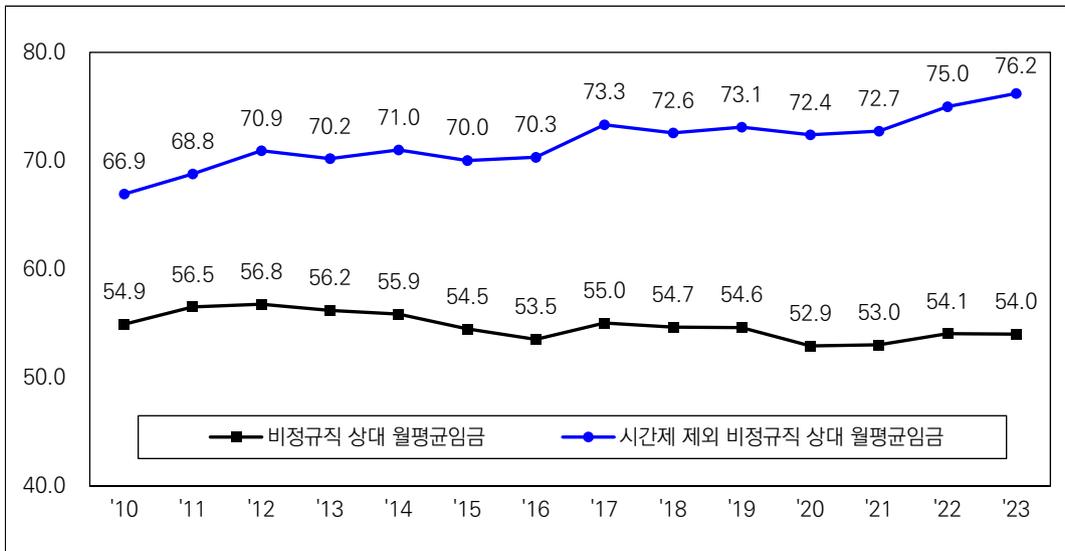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23년 8월.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중은 모두 감소하였고, 비정규직 임금은 2022년보다 상승하였다. 비정규직의 지난 3개월간 월평균임금(6~8월)은 195.7만 원으로 전년대비 4.0% 상승하였고, 정규직 월평균임금은 362.3만 원으로 전년대비 4.1% 상승하였다.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비정규직의 상대 월평균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54.0%로, 2022년 54.1%와 비슷하다(그림 6 참조). 다만, 월평균 임금은 근로일수나 근로시간 등이 고려되지 않는다.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간제 근로는 근로시간이 짧아 월임금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제 근로자가 큰 폭 증가하는 경우 전체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비정규직에서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하고 정규직과의 월평균임금 격차를 살펴보았다. 2023년 8월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상대 월평균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76.2%로 전년보다 1.2%p 상승하였다(그림 6 참조). 월평균임금을 평소 1주당 근로시간을 이용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결과가 <표 9>의 오른쪽에 나타나 있다. 2023년 시간당임금은 정규직이 20,000원, 비정규직이 13,900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3.9%, 5.6% 증가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 시간당임금은 69.5%로 전년보다 1.1%p 상승했고,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상대 시간당임금은 정규직의 75.6%로 전년보다 1.1%p 상승했다.

세부 근로형태별로 보면 파견근로를 제외한 모든 근로형태에서 임금이 상승했다. 파견 근로자 임금은 2022년에 월평균임금이 전년대비 11.8%, 시간당임금이 9.4% 증가했지만, 2023년에

[그림 6] 비정규직의 상대 월평균임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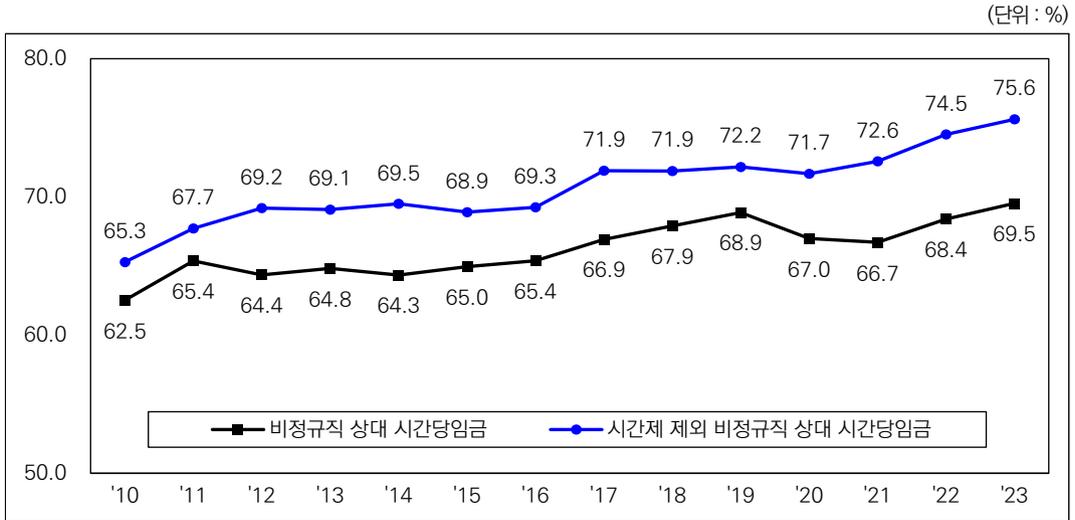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정규직 월평균임금=100일 때, 비정규직 및 시간제근로자 제외한 비정규직의 상대 월평균임금.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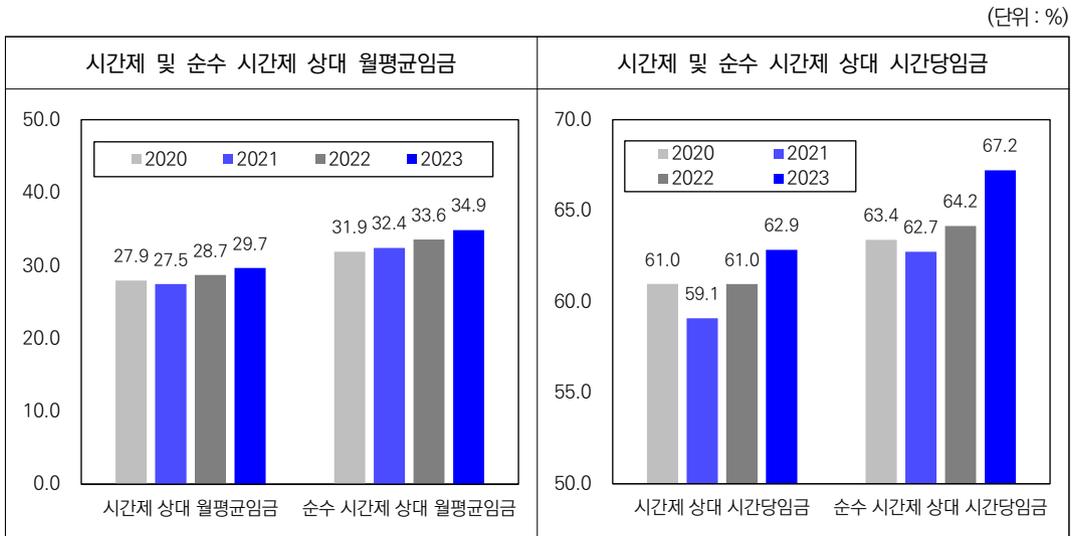
는 각각 6.0%, 5.7% 감소하여 비정규직 중 유일하게 전년대비 임금이 감소하였다. 2023년 고용 규모가 큰 폭 증가한 시간제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전년대비 7.6%, 시간당임금은 7.1% 상승하

[그림 7] 비정규직의 상대 시간당임금 추이



주 : 정규직 시간당임금=100일 때, 비정규직 및 시간제근로자 제외한 비정규직의 상대 시간당임금.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그림 8] 시간제 근로의 상대 임금수준(좌 : 월평균임금 기준, 우 : 시간당임금 기준)



주 : (좌) 정규직 월평균임금=100일 때, 시간제 및 중복을 제거한 시간제의 상대 월임금 수준, (우) 정규직 시간당임금=100일 때 시간제 및 중복을 제거한 시간제의 상대 시간당임금 수준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였다. 정규직 대비 시간제 근로자의 상대 월평균임금 수준은 2022년 28.7%에서 2023년 29.7%로, 시간당임금수준은 61.0%에서 62.9%로 상승했다. 다른 근로형태와 중복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시간제에만 속하는 근로자로 한정하여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수준을 살펴보면, 2023년 8월 기준 순수시간제의 상대 월평균임금은 정규직대비 34.9%, 상대 시간당임금은 67.2%이며 전년 대비 각각 1.3%p, 3.0%p 상승했다(그림 8 참조).

〈표 10〉은 시간당임금 기준으로 비정규직 중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계산한 결과이다. 2023년 8월 비정규직 중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9.3%로 전년대비 2.6%p 감소하였다. 2019년에 비정규직 중 약 30%가 저임금 근로자였는데, 2020년에 저임금 근로자가 큰 폭 증가(2019년 대비 약 11%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중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33.7%까지 증가했다. 2021년 비정규직 중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31.9%로 전년보다 감소하였는데, 저임금 근로자의 감소보다는 전체 비정규직 규모가 큰 폭 증가한 결과였다(2021년 저임금 근로자 전년대비 2.8% 증가). 2022년에도 전년과 같은 비중을 유지하던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는 2023년에 약 22만 명 감소(전년대비 8.5% 감소)하며 비정규직 중 차지하는 비중이 2.6%p 감소하였다. 비정규직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019년 이후 약 29~34%대에서 변동하고 있는데,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하는 경우 비정규직 중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0%대 후반~20%대 초반 사이에서 움직인다. 2020년을 제외하고 최근 몇 년간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 중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매년 2.5~2.6%p씩 감소해왔다.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는 2021년부터 매년 감소폭이 확

〈표 10〉 비정규직 저임금 비중(시간당임금 기준)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저임금 비중	15.8	17.4	16.1	15.6	14.0
정규직 저임금 비중	7.6	8.1	6.2	5.7	5.0
비정규직 저임금 비중	30.1	33.7	31.9	31.9	29.3
시간제 제외 비정규직 저임금 비중	18.4	22.1	19.6	17.1	14.5
시간제 저임금 비중	46.2	48.5	47.7	49.9	45.6
중복을 제거한 시간제 저임금 비중	42.1	44.8	40.8	45.4	39.6
여성 시간제 저임금 비중	45.1	48.8	47.4	50.6	45.8
중복을 제거한 여성 시간제 저임금 비중	40.6	44.8	41.0	45.9	38.7

주 : 1) 시간당임금 = 월평균 임금 / (평소 1주당 근로시간 * 30.4 / 7)

2) 시간당임금 기준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뜻함.

3) 근로자 비중은 각각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제외 비정규직, 시간제, 중복을 제거한 시간제, 여성 시간제, 중복을 제거한 여성 시간제 중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대되었다. 2023년에는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가 전년대비 19.4%(14만 8천 명) 감소하였고, 그 결과 비정규직 중 비중은 전년대비 2.6%p 감소한 14.5%로 나타났다.

2023년 시간제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45.6%, 여성 시간제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45.8%이다. 시간제 및 여성 시간제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모두 2019년 이후로 40% 중후반대에서 매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2023년에 각각 전년보다 4.3%p, 4.8%p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시간제 근로자가 저임금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른 근로형태와 중복되지 않는 순수 시간제 근로자만 보면 저임금 근로자는 2023년 기준 39.6%, 여성 순수 시간제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는 38.7%로 각각 전년보다 5.8%p, 7.2%p 비중이 감소하였다. 2023년에 순수 시간제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큰 폭 감소한 것은 저임금 근로자의 감소보다는 순수 시간제 근로자 규모가 큰 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순수 시간제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는 2023년에 전년보다 9천 명 증가, 여성 순수 시간제 중 저임금 근로자는 1천 명 감소에 불과하다.

2.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 특수형태 근로자 가입 증가

2023년은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개선되었다. 비정규직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과 복지제도 수혜율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근로조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표 11 참조). 한시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0.4%p 감소하여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은 전년대비 0.2%p 감소하였지만, 복지제도의 경우 한시적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모두 수혜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 중 특수형태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이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9 참조). 국민연금 가입률은 10.9%로 전년 대비 5.5%p 증가하였고, 건강보험은 12.7%로 5.9%p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2021년 7월부터 적용된 특수형태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2022년 7월부터 기존 산재보험 특례 직종에 새로운 5개 직종(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골프장 캐디,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기술자) 추가,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지원 사업¹⁾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특수형태 근로자는 60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29만 8천 명 증가하였다. 특수형태 근로자는 23년 기준 금융보험업(41.9%), 도매소매업(16.1%), 운수창고업(10.3%), 교육

1) 근로복지공단은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신규 가입자에 한해 사업주와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노동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함으로써, 특수형태 근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예술인 등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표 11〉 비정규직 근로형태별 2023년 사회보험 가입률과 복지제도 수혜율 수준 및 증감

(단위 : %, %p, 전년동월대비)

	사회보험			복지제도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퇴직금	상여금	유급휴가	시간외수당
비정규직	55.8(0.8)	64.0(-0.2)	56.3(1.1)	49.9(3.2)	44.5(1.5)	43.1(2.0)	37.0(1.9)
한시적 근로	72.5(0.3)	74.2(-0.4)	73.2(0.8)	64.0(2.9)	55.3(2.2)	58.2(2.4)	46.2(2.2)
비전형 근로	30.2(2.6)	59.4(0.3)	29.7(1.5)	25.5(1.3)	25.8(1.7)	20.7(1.2)	19.8(1.0)
시간제 근로	34.2(2.3)	42.8(1.2)	34.9(3.0)	31.4(5.2)	28.3(2.8)	22.2(4.2)	25.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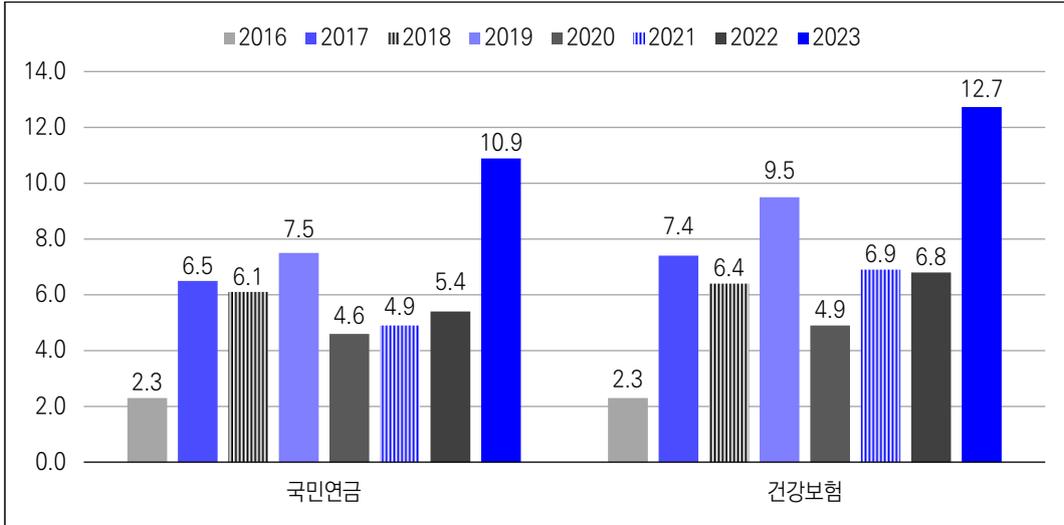
주 : 1) 60세 미만으로 한정하였음

2) () 안은 전년동월대비 비중 증감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그림 9〉 특수형태 근로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자 비중

(단위 : %)



주 : 특수형태 근로자 중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서비스(7.3%) 등에 종사하고 있다. 2023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특수형태 근로자의 증가는 금융보험업 등 근로자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산업 위주로 나타난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특수형태 근로자가 종사하는 산업은 도매소매업이 20.9%(전년대비 9천 명 증가), 운수창고업은 17.1%(전년대비 6천 명 증가), 금융보험업이 40.3%(전년대비 10만 명 증가)을 차지한다. 2023년 특수형태 근로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71만 명으로 전년대비 32만 2천 명 증가하였다. 특수형태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자 산업별 비중은 도매소매업 19.1%(전년대비 7천 명 증가), 운수창고업 19.4%(전년대비 6천 명 증가), 금융보험업 40.0%(전년대비 8천 명 증가)이다.

〈표 12〉 특수형태 근로자 산업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자 비중

(단위 : %)

	국민연금			건강보험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도매소매업	6.3	12.5	20.9	7.9	10.7	19.1
운수창고업	30.5	14.4	17.1	23.8	15.6	19.4
금융보험업	27.5	47.0	40.3	22.0	45.0	40.0
부동산업	-	5.6	2.8	-	4.4	2.4
사업지원관리	-	0.9	3.8	1.2	0.7	2.2
교육서비스	6.0	2.9	2.5	11.8	2.3	3.3
보건복지	-	7.2	3.0	3.1	6.7	2.6
예술스포츠	11.1	2.3	4.0	8.0	3.9	3.4
협회단체	8.6	1.5	2.1	6.2	1.2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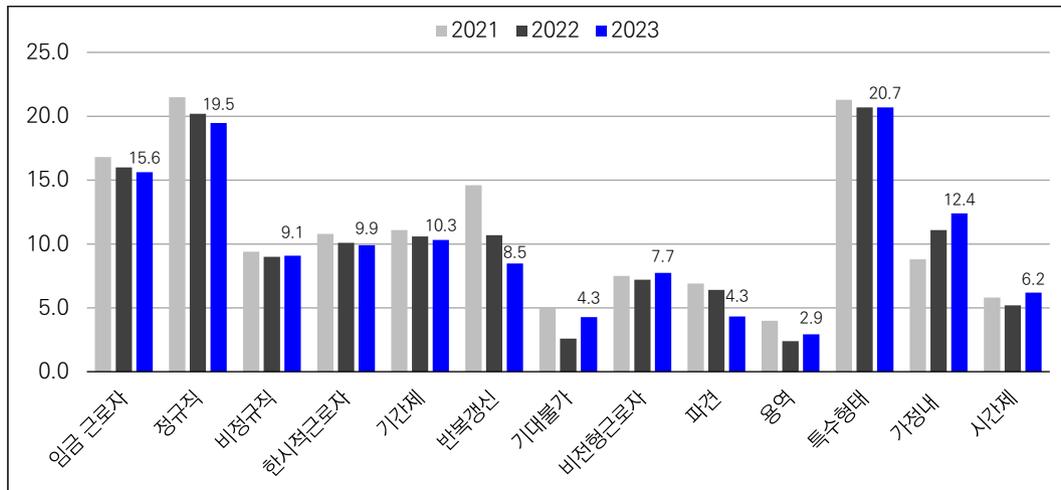
주 :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업, 숙박·음식점업, 공공행정업 등은 관측치가 얼마 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표에서 제외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2023년 코로나19가 엔데믹(일상적 유행)으로 전환되면서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이 임금 근로자는 감소하였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전년과 비슷하다. 2023년 임금근로자의 15.6%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유연근무제 활용자 비중이 전년동월대비 0.4%p 감소하였다. 비정규직

〈그림 10〉 근로형태별 유연근무제 활용자 비중

(단위 : %)



주 : 1) 각각 근로형태별 전체 근로자 중 활용자 비중을 나타냄.
 2) 일일 근로는 관측치가 얼마 되지 않아 그림에서 제외함.
 3) 표시된 수치는 2023년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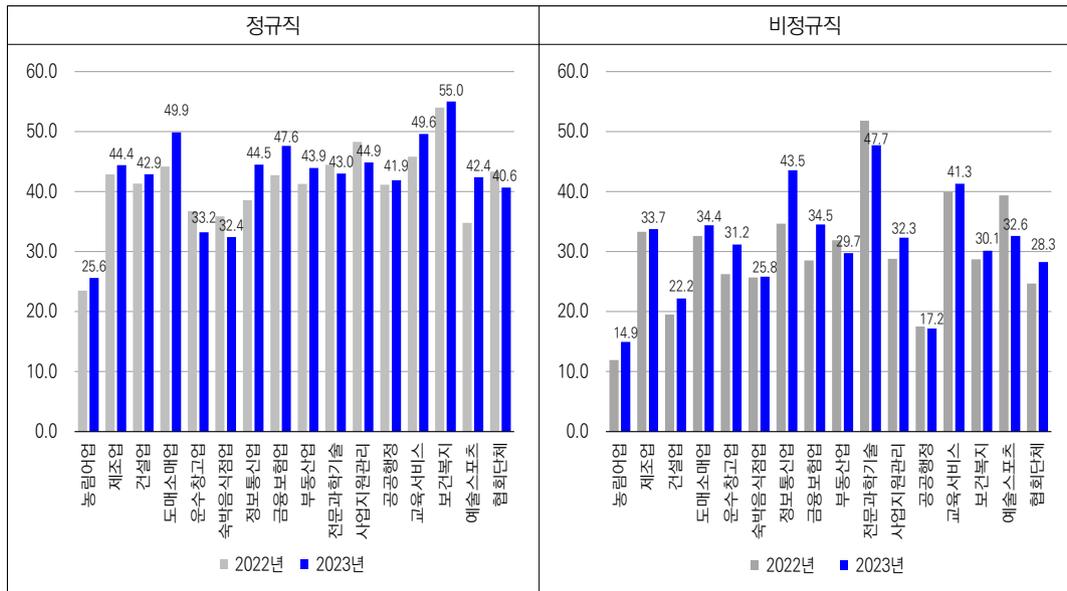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자 비중은 전년과 차이가 없지만 세부 근로 형태로 살펴보면 기간제, 반복갱신, 파견 등에서 감소하였다(그림 10 참조). 기간제 근로자(10.3%)와 반복 갱신 근로자(8.5%)는 각각 0.3%p 2.2%p 감소하였다.

유연근무제 활용자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지만, 유연근무제 활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정규직 전체 근로자 중 44.8%, 비정규직 전체 근로자 중 31.0%로 전년대비 각각 1.5%p, 1.8%p 증가하였다. 정규직 근로자가 유연근무제 활용을 희망하는 비중은 예술스포츠업 42.4%(전년대비 7.6%p 증가), 정보통신업은 44.5%(전년대비 5.9%p 증가), 도매소매업 49.9%(전년대비 5.7%p 증가) 등의 산업에서 증가하였다. 비정규직의 경우 정보통신업 43.5%(전년대비 8.9%p 증가), 금융보험업 34.5%(전년대비 6.0%p 증가), 운수창고업 31.2%(전년대비 4.9%p)등의 산업에서 유연근무제 활용자 비중이 증가하였다.

[그림 11]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업별 유연근무제 활용 희망자 비중

(단위 : %)



주 : 1) 각각 산업별 전체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분모로 함.
 2) 표시된 수치는 2023년 값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가입률을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소폭 감소하였다(표 13 참조). 정규직 노조 가입률은 17.7%로 전년대비 0.1%p 감소했으며, 비정규직은 3.0%로 0.3%p 감소하였다.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비율은 정규직은 2023년에 33.5%로 전년대비 1.4%p 감소하였다. 반면 비정규직은 15.5%로 0.3%p 소폭 증가하였다. 노조 가입 자격 보

유자 비율은 2022년까지 증가세를 보였지만, 2023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노조 가입 자격 보유자 비율이 감소하였다. 노조가입자격 보유자 중 실제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비율은 정규직의 경우 63.5%로 전년 대비 2.6%p 증가하였고, 비정규직은 50.2%로 1.7%p 감소하였다.

〈표 13〉 근로형태별 노동조합 유형별 비율 추이

(단위 : %)

	노조 가입자 비율		노조 존재 사업체 근로자 비율		노조 가입 자격 보유자 비율		조합원 비율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2020	17.6	3.0	32.8	14.4	81.7	37.0	65.7	56.1
2021	18.4	3.3	35.1	15.4	82.4	40.3	63.6	53.5
2022	17.8	3.3	34.9	15.2	84.1	42.1	60.9	51.9
2023	17.7	3.0	33.5	15.5	83.1	38.8	63.5	50.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IV. 맺음말

2023년 8월 실시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이용해 분석한 비정규직 규모와 근로조건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모두 감소하였다. 특히 반복갱신근로자와 일일근로자의 감소가 전체 비정규직 규모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비정규직 세부 근로형태 근로자 대부분이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기간제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는 증가했다. 기간제 근로자는 최근 몇년간의 증가추세를 2023년에도 이어가는 모습이다. 시간제 근로자는 2022년까지는 한시적(기간제)근로자 증가와 함께 증가해 왔으나 2023년에는 다른 근로형태와 중복되지 않고 시간제에만 해당하는 근로자(여성)가 큰 폭 증가했다.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비정규직의 임금은 상승하였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 월평균임금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은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이 상당폭 상승하였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복지제도 수혜율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특히, 특수형태 고용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코로나19가 일상적 유행으로 전환되면서 임금 근로자 중 유연근무제 활용자 비중이 줄어들었다. 유연근무제 활용자 비중은 정규직에서 전년보다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 반복갱신 근로, 파견 근로 등에서 전년보다 감소했다. 한편, 유연근무제를

활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증가했는데,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운수창고업 등에서 유연근무제 활용 희망자가 증가했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소폭 감소하였다. [KLI](#)

[참고문헌]

이병희 · 강신욱 · 김문정 · 성재민 · 강희정 · 류재린 · 박종식 · 고창수 · 김혜원 · 이승호 · 오상봉 · 이다미 · 송창길 · 고숙자 · 여나금 · 이재은(2023), 『소득기반 사회보험 혁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부록〉 통계청 비정규직 근로형태별 정의

통계청은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의한다. 근로형태를 기준으로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로 정의한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다.

		용어 설명
비정규직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등으로 분류
한시적 근로자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비기간제	- 반복갱신 :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 - 기대불가 : 계약 만료, 일의 완료, 이전 근무자 복귀, 계절근무 등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파견근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 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용역근로	용역 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
	특수형태 근로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함.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
	가정 내 근로	재택근무, 가내 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 작업장이 아닌 가정 내에서 근무(작업)가 이루어지는 근무형태
	일일(단기) 근로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

자료 : 통계청(2023),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보도자료.